

建築이라는 藝術 (V)

■
Eaasy
Truth in Architecture
by An, Byung-Ui

다섯번에 걸쳐 내가 생각하는 建築이라는 예술을 나의 經驗을 통해 써 보았지만 더러 좀 獨斷的이라고 생각되는(나 자신) 부분도 있을 것이다. 나는 예술이란 편견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調理士는 때로는 조리의 원리를 추월한다고, 나 자신은 건축디자인에 있어서 건축설계 학설따위 이론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될수록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운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安秉義
종합건축사사무소 향건축

이 글을 쓰는 지금, 6월 들어선 이른 여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다. 나는 비를 무척 좋아한다. 짧은 빗줄기가 바람을 타고 번개를 치는 폭풍우도 좋지만 오늘처럼 소리없이 내리는 실비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게 한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을 것같은 차분히 가라앉은 빗소리다.

온 천지가 그지없이 고요하다. 나는 이 고요함을 사랑한다. 고요함이란 소리가 없는 無音의 정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있으므로 하여 느껴지는 마음의 세계를 말한다. 눈 나리는 밤의 차분함, 우거진 숲, 잎새를 흐르는 바람소리, 간간히 들려오는 절간의 풍경소리, 가을밤의 벌레소리 등등. 고요함이란 感覺의 세계라기 보다는 감성의 세계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파스함과 차가움을 느끼고, 혀로 맛을 알고, 코로 냄새를 맡는 등 우리들은 五感を 갖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멋있다, 아름답다, 흥하다, 놀랍다 등 視覺이나 聽覺을 통해 우리들의 머리에 전달되어 느껴지는 정신적인 感性의 세계가 따로 있다. 感覺, 感性, 感情이라는 말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知覺, 知性, 理性따위인데 사람의 창작활동은 이 두 종류의 領域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활동종류에 따라 주동이 되는 영역이 다르다.

과학, 종교, 미술의 셋을 비교해보면 科學은 感性보다는 훨씬 知性, 理性쪽이고, 宗教나 美術은 感覺, 感性의 영역이다.

회화, 조각, 음악 등은 물론 감각, 감성을 통한 창작활동이다. 그러나 술에 속하면서도 建築은 어떠한가.

건설해야 하는 까닭에 애당초 건축은 공학에서 빠져 나올 수 없었으나, 機能主義의 물결로 하여 機能우선의 思考는 지식과 지각만으로 건축을 디자인하는 풍조가 되었고, 감각이나 감성에 의한 사고는 잊어버린 듯하다.

그러나 기능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건축을 만들려는 기운이 번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그동안 잊어버렸던 감성의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것 같다.

잘 알려져 있는 傑作들은 지성보다는 감성에 의한 작품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건축작품을 놓고 理智的探求의 결과인가, 感性의 결과인가를 분명하게 판가름한다는 것은 作家 自身에게 물어보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분석하고 느끼며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이트」의 落水莊이나 「군젠하임」美術館,

「웃쨌」의 「오페라하우스」, 「꼐뵤쨌」의 「룽상」 禮拜堂, 「리벨」의 「토크톤」, 市廳舍, 「알토」의 몇 개의 작품들, 「니마이어」의 자택, 특히 「부르스 고프」의 주택이나 「파우로 쏘레리」의 작품들. 불후의 작품인 이러한 건축들은 모두 그 작품에서 느껴지듯이 감성에 의한 결실이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 인간의 생활습관이나 사회적인 기능이 달라져, 건축할 당시의 본래의 기능은 쓸모없이 되어버려 건물은 개축할 수 밖에 없다. 즉 본래의 기능은 사라져 버린다. 따라서 세월이 흘러도 남게 되는 건축은 그 기능 때문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건축의 참다운 기능이다. 佛國寺나 浮石寺가 그렇다. 「노트르담」寺院이 그렇고, 앞서 열거한 걸작들이 그 아름다움으로 하여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오묘한 것, 힘찬 것, 아름다운 것 등, 어떤 감동을 일으키는 건축만이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고, 우리들은 우리세대에 살았다는 증거로서도 이러한 건축을 남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은 감성에 의한 것으로 뛰어난 감성을 키우는 일에 부지런해져야 할 것이다. 「라이트」의 낙수장이나, 「꼐뵤쨌」의 「룽상」에배당은 수십년 전의 작품이다.

그후 많은 세월이 흘러 그때보다 건설하는 기술이 더 발달되어 落水莊보다 더 「켄티레바」를 쪽뵤아, 보다 더 다이나믹한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모듈이나 그릿드 시스템 등 설계하는 기술도 많이 발달되었고 건축이론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수장이나 「룽상」에 비길만한 작품이 아직도 탄생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라이트」나 「꼐뵤쨌」의 천재성에 비길만한 건축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재성 대신에 감성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건축이론이나 지식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감성이 작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지식이나 기술은 세월이 흐르면서 축적되어, 후세에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은 그 전 세대 사람보다 진보되어 있지만 감성이란 그 사람 자신만의 것으로 남에게 주거나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건축이란 좋은 比例, 調和, 統一된 性格, 個性등의 結晶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다. 좋은 비례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학교에서 지식으로서 배웠다. 그러나, 그러한 비례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비례감각으로 이것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감각이다. 예민한 감각의 훈련을 통해



노틀담사원

저절로 알게되는 감성의 세계이다.

조화나 통일감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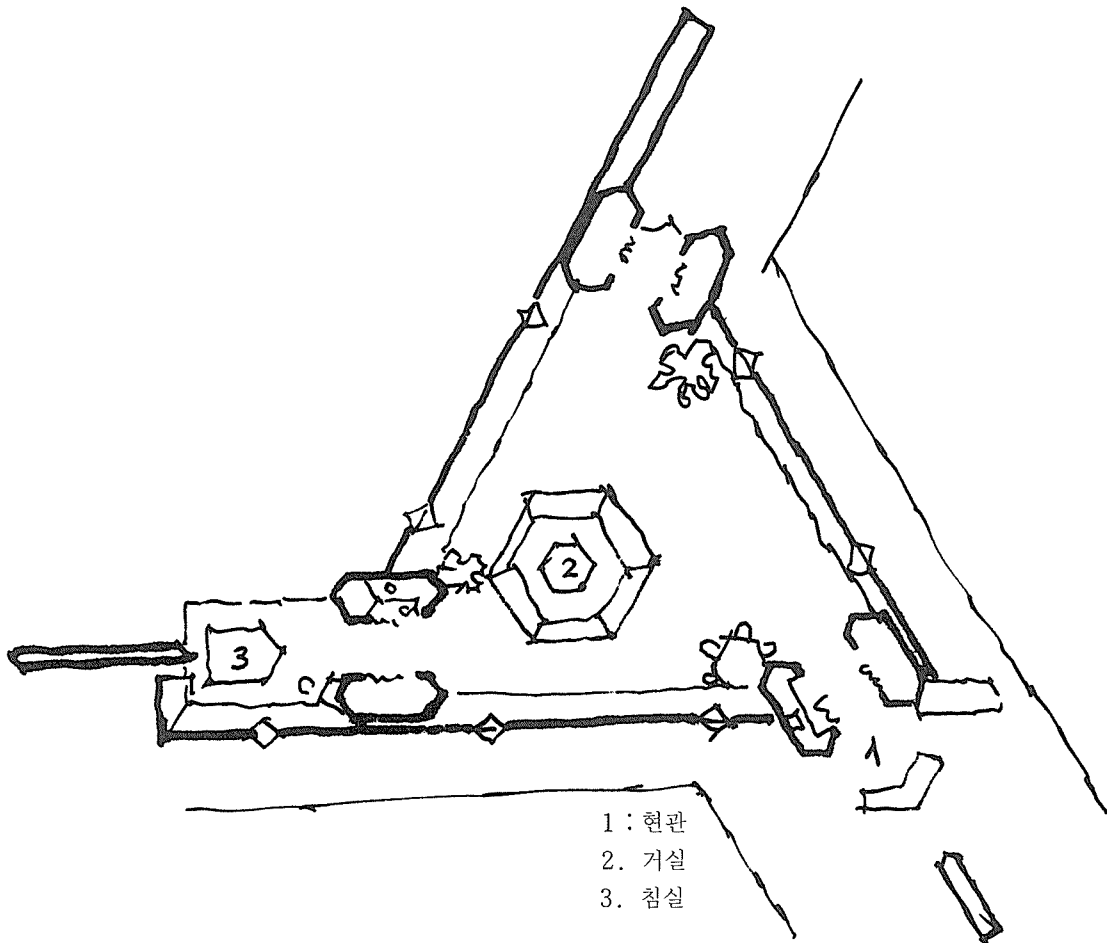
오랜 經驗과 思考를 거친 直觀的인 감성에 의해 창출된 것이다. 이처럼 건축디자인에 있어서 지식이나 지각을 통한 사고보다 감성에 의해 창조하는 자세가 월등히 뒤떨어져 있고, 잊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라파는 오랜 전통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좋은 건축이 많은데 그 중 으뜸가는 것이 파리의 「노틀담」사원이다. 오래전에 거기 들렸을 때 나는 사흘 동안의 오후내내 「카페 테라스」에 앉아 이 사원을 물끄러미 바라 보면서 지냈다. 이 사원이 세워진 후에 Gothic 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고딕」이란 野蠻的이라는, 천대시한 이름이지만 寺院의 역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고딕」사원이다. 「노틀담」이 아름다운 것은 「고딕」이라는 관념이 생기기 전에 하나의 건축으로서 빛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참다운 미의 탄생이다. 하나의 관념주의 같은 것이 먼저있어, 그 관념을 원형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마음의 감동을 주는 아름다움보다는 정교한 완성품일 따름이지 순수한 건축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다. 「현대건축은 이래야만 한다」 따위의 관념말에, 그 공식에 숫자를 代入하다시피 만들어진 건축은 관념의 노예이며, 하나의 虛構이고, 말하자면 O, X 문제의 우등생 답안지이지 주체성을 가진 생명력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러면 이에 대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건축가로서의 뛰어난 감성이다. 우리들은 잘못된 인식에 젖어 있다. 즉, 이런 것. “현대에는 날이 발전하고 있다.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새로운 지식을 빨리 흡수해야 한다. 지식은 많을수록 건축디자인에 도움이 된다.” 등 그러나 나는 “차라리 지식은 최소한으로 족하다.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보다는 뛰어난 감성이다. 무던 감각을 떨쳐버리고 발랄하게 반짝이는 예리한 감성이다”라고 생각한다. 「모짜르트」의 天才性은 그의 知識이었나, 그의 感性이었나? 아홉살난 「모짜르트」에게 음악의 지식이 있었으면 뭐 대단한 것이었겠나. 음악공부라고는 국민학교 정도 밖에 못한 「베에토편」이 아니었던가. 우리들은 또 다른 잘못된 인식에 젖어 있다. 즉 지식은 책속에 있다는 思考方式이다. 이 思考는 책속에 있는 것을 찾아 새로나온 책에서 책으로, 언제나 남의 생각을 뒤쫓아 자기 스스로 사고하려고 생각치 않고 비판하려 하지 않고 느끼려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했다”하고 딴 사람의 확설을 마치 자기 지식인 것처럼 잘못 생각한다. 하여 남의 의견이나 사고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경향은 책을 많이 읽었다는 지식인들에게 더 많다. 살아있는 지식이란 책이나 남의 의견이나 또는 경험하는 것등을 자기의 감각과 이성과 自己意思라는 체에 쳐서 선정하여, 자기의 생각으로 끌어 올린 것을 말한다. 또한 살아있는 지식이란 자기의 경험과 사고를 통해 굳어진 것이다. 좀 외람되지만, 나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기로 한다. 꽤나 오래된 일인데 식모애가 대야에 세수물을 떠 뒷마루에 놓은 어느 날, 무심코 위를 올려 보았을 때 대야의 물이 바람에 물결치면서 햇빛을 받아 처마에 어리었다. 그 현란한 그림자를 한참 보다가 문득 「르콜부쥬」의 「산디갈」高等裁判所와 州議事堂의 큼직한 연못의 뜻을 깨달았다. 훗날 이 두 건물앞에 섰을때 느낀 것은 비단 건물에 빛의 그림자가 춤을 추는 효과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더운바람이 연못을 스치면서 냉각되어, 건물에 시원해진 바람을 불어주는 것을 알게되었다. 잔잔한 바람에도 물결을 일으키려면 연못은 얕을수록 좋을 것 같다. 실제로 물 깊이를 재어보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왕비의 죽음을 슬퍼하며, 20년이라는 세월이 걸쳐 지었다는 「타지마할」은 왕의 애절한 슬픔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매우 아름다운 궁전으로,

이 궁전에 이르는 약 300미터쯤 되어 보이는 길따라 연못이 파되어 지루하리만치 긴 걸음이지만, 기분좋은 「어프로우치」이다. 이 궁전이 연못에 비치는 달밤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는 이야기다. 감각을 통해 얻은 기억은 지식을 통한 기억보다 강하고 생생한 것 같은데, 역시 오래전 어느 여름 光陵에 들렀을 때 일이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소나기가 퍼붓더니, 곧이어 잊은듯이 햇빛이 낮에도 어두운, 우거진 잣나무 사이로 쏟아지면서 나뭇잎에 열매를 맺은 물방울이 반짝이고 멈춰던 개구리와 매미들의 합창이 시작되는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이 기억은 머리속에 잠재되어 나 자신도 잊어버렸는데 어느날 책에서 교회의 사진을 보면서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 났다. 그 작가는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교회 祭壇의 후면전체가 큼직한 유리창으로 되어있어 우거진 숲의 배경이 그대로 한 눈에 들어온다. 숲속에서 느끼는 신선한 모습. 여름에는 우거진 녹음이, 가을에는 단풍이, 겨울에는 하얀설경으로 가득찬 교회당을 상상해 보자. 光陵의 감동스러운 기억은 이 교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共感까지 하게 된다. 설악산에 있는 金剛窟은 꽤나 높은 데 있어 웅대한 경치가 파노라마처럼 넓게 펼쳐 보이지만 이 굴안에 깊숙히 들어가 굴입구를 거쳐 바라다 본 외설악의 풍경은 좁지만 오히려 훨씬 강하게 느껴진다. 「로마」에 들려 12세기인가에 지었다는 둥그런 모양의 城(聖바지리카城?)에 들렀을 때의 이야기이다. 맨 옥상에 오르니 작은 정원이 있어, 성벽에 군데군데 港口를 감시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으로 내려다본 경치는 틀에 넣은 그림같은 기분이다. 바로 Picture Window. 무한하게 펼쳐진 풍경보다 한정된 테두리안에 놓여진 풍경이 어떤 완성된 조형의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 아름다운 풍경을 받아들이기 위해 바닥에서 천장 벽면 가득한 올그래스의 창을 꾸미는 것은 상식적인 방법이겠으나, 이 풍경을 보다 강하게 느끼려면 석자각이나 녀자각 정도 크기의 강한 테두리가 있는, 정방형의 창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共同體意識을 느끼게 하는 空間은 矩形보다도 圓形이 더 좋은것 같다. 「이로사리넨」의 M.I.T 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당은 붉은 벽돌의 圓筒形으로, 자그마한 연못이 그 주위를 감싸면서 돌아가고 바로 수면은 유리로 교회당내부와 한계짓는다. 연못에



Bruce Goff Price House

떨어진 햇빛이 희미하게 방안으로 스며 몽롱하게 밝고, 한편 祭壇 위 천장에 뚫어놓은 「스카이라이트」는 강한 빛을 그 주위에 늘어진 금록의 조각에 반사되면서 絢爛한 빛의 드라마를 연출한다.

원형이라는 공간이 내포하는 뜻, 햇빛, 물 등을 체험을 통해 이해한 건축가다운 작품이다.

건물내부 공간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해 흔히 우리들은 色環表를 펼쳐놓고 고민하지만 나는 아주 손쉽게 색상을 결정한다.

남해안의 어느 작은 마을의 호텔을 설계했을 때 일이다. 가까운 바닷가에 나가 모래밭에서 물이 출렁이고 바위에 파도가 부서지면서 흰물결이 쪼개지고, 녹색기운이 감도는 물결이 짙은 청색으로 변하면서 수평선에서 끝나는 바다경치와 이웃한 푸른 언덕, 우거진 숲, 맑게 개인 하늘 따위를 한쪽의 수채화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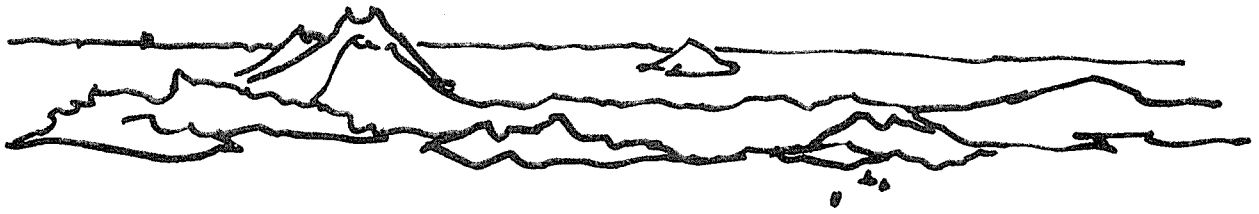
미묘하게 변해가는 여러색상에서 이 호텔에 어울릴만한 主色相을 골라잡기만 하면 나머지 색들은 최소한의 색에 대한 지식과 최소한의 감각과 색에 대한 센스만 있으면 족한다.

11월 즈음의 法住寺는 은행잎이 땅위에 소복히 쌓여 그 위에 뒹굴었던 추억의 고장이다. 은행잎이 무질서하게 깔려있는 모습을 「모티브」로 하여 약간의 그래픽을 넣어 로비의 카페트로 삼았다. 4월의 제주도는 유채꽃 천지. 제주의 어느 호텔 객실바닥은 유채꽃 기분이 물씬 풍기는 색상의 카페트로 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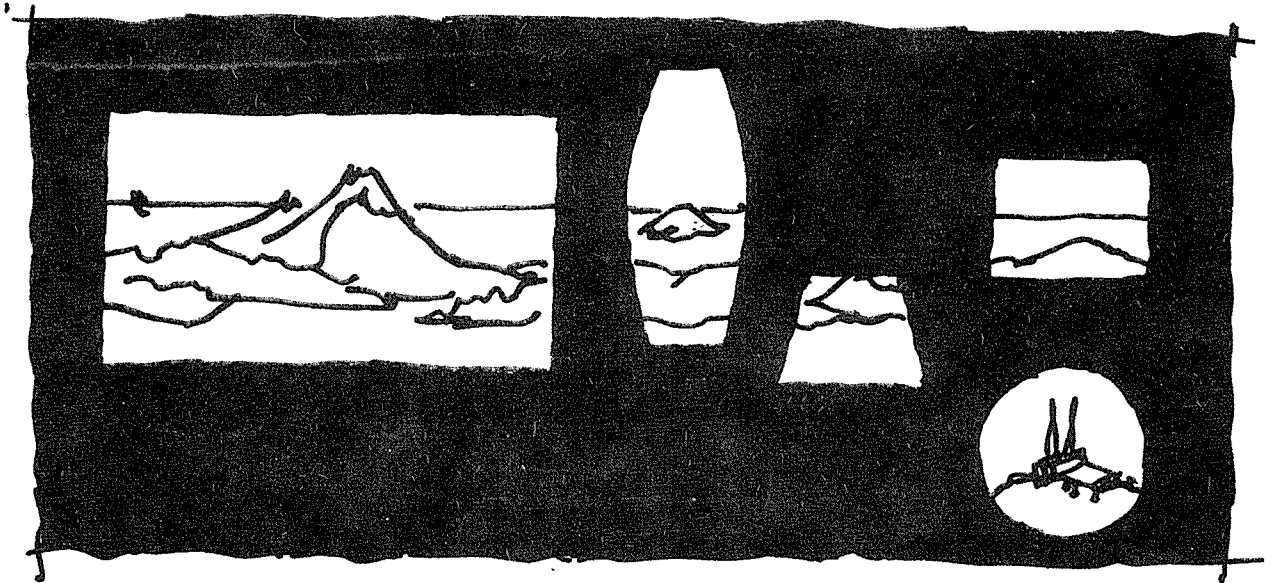
맑게 개인날 해가 서쪽으로 지면서 노을진 하늘이 오렌지색에서 핑크빛, 붉은빛으로 변하고 해가 저물면 보라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은 흔히 보는 감동적인 모습이다.

나뭇잎이 봄에서 늦은가을까지 변해가는 모습은 또 어떤가. 이처럼 우리들 주변은 많은 색으로 둘러 쌓여있고, 언제나 보는 까닭에 정이 든 색상이다. 다만, 언제나 무심히 보고 넘기기에 살아있는 경험으로 남아있지 않다.

깊고, 탁하고, 거센파도가 치는 바다보다는 둥글게 다듬어 자갈에 부딪혀 작은소리를 내며 졸졸흐르는 산골짜기의 맑은 물이 더 정다움다. 단풍잎이라도 한잎 띄워 흐르면 카메라맨이 즐겨 찾는 씬이다. 동경의 어느 호텔 정원의 연못은 까만 대리석바닥에



Picture Window



水深제로의 물이 흐르며 군데군데 바닥에 붙여진 도자기의 장식에 물이 부딪혀 작은 소용돌이를 친다. 수심제로란 말의 장난이겠고 실제로는 1센치나 2센치쯤 되겠지. 물의 습성을 잘 이해한 작품이다. 지금 나는 2년째 부산 海雲臺에 위치한 호텔을 손대고 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관의 색상으로,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 사연은 이렇다. 나는 「말그릴」이라는, 지금은 돌아가신 화가의 작품을 좋아한다. 바다위에 하늘높이 떠있는 성, 눈알이 부라리고있는 부엉이 등 환상적인 「술리어리즘」풍의 그림들이 많은 작가이다. 호텔 - 화려한 곳 - 보석. 에메랄드 해운대 - 바다 - 녹색, 청색물결 - 흰물결 이 두갈래의 想念속에 헤메이다가 어느날 갑자기 에메랄드 → 에메랄드 그린 이 생각났고 바다 위에 떠있는 에메랄드 보석의 이미지가 말그릴의 그림과 겹쳐졌다. 바다라는 이미지에서 곧 수평선이 강조된 외관이 떠올랐고 자연스럽게 연녹색의 유리화 이와 비슷한 색상의 스펀드렐이 결정됐다. 흰 물결을 상징하기 위해, 수평선의 스펀드렐을

흰색인가, 또는 유리와 같은 계통인가 다소 망서렸으나 에메랄드보석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 흰색을 쓰지 않기로 했다. 나는 에메랄드의 이미지를 설명했고 백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쉽게 동의해 인테리어도 녹색이 비교적 많이 쓰인 디자인이 되었다. 이상 나의 감각의 세계를 들추어 보았다. 나는 비교적 감각적이고 또한 감성적이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치 못할 때가 많다. 최근의 일은 서울시가 결정한 「버스」의 색상이다. 보라색의 본질(?)은 환상적, 憂愁, 꿈, 고귀, 性的 불만 따위이다. 옛날 중국의 임금님은 보라색 옷을 걸쳤고, 일본도 그랬다. 버스처럼 달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미국 젊은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칠하는 이가 많은데 누구도 보라색은 칠하지 않는다. 내 서재에는 어느 대가가 그린 늦은봄의 北漢山의 복사판이 붙어있는데, 綠色계통의 색상을 결정할 때는 이 그림을 참고로 한다. 미묘한 여러가지 녹색이 들어 있는데, 화가가 그린 그림이니 色環表의 비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색환표이다.

뜻이다. 「알바 알토」의 사무실에 인도의 건축가가 찾아와 「알토」에게 물었다.

「당신의 작품의 모듈은 무엇입니까?」
모듈이라는 것을 초월하고 있는 「알토」가 머뭇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알토의 수제자가 답변했다.

「1미터 또는 그 이하쯤이겠지요.」

지금 지구상에는 많은 이름있는 건축가들이 있어 마치 중국 전국시대같은 모습이다. 르 콜부쵸나 라이트처럼 뛰어난 영웅이 아니라 옛 비슷한 대가들이라,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젊은 건축가들이 많으리라고 짐작된다. 영웅시대는 이미 지났다. 현대는 영웅을 중요시하지 않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굳이 누구를 따를까 하고, 또는 어떤 새로운 작품이 나왔는가하고, 또는 요새 작품들은 어떤 유행을 쫓고 있는가하고 신간잡지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 확실한 것은 자기만의 세계를 서서히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언제나 감각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감각은 습관성이 있어 무디어지기 쉽다. 무딘 감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끼지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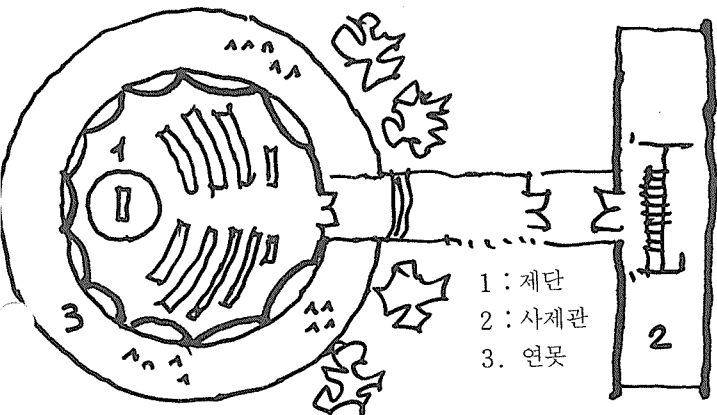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를 가질 것. 지식이나 작품을 맹목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사고하여 자기만의 자기를 위한 지식으로 삼아야 하겠다. 모든 지식의 원리까지 생각하는 哲學의 정신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감각과 사고를 통한 감성을 풍부하도록 닦아나갈 것. 자유로운 사고, 자유로운 감성은 한단 높은 경지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겠다.

以上 建築디자인에 앞서 자기가 지금 구상하려는 건축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선배작가들은 본질을 어떻게보고,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했으며 우리들이 잊고 있는 감성에 의한 디자인프로우치, 다시 말하면 直觀的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설명한 셈이다.

예술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건축 또한 그렇다.

이상 다섯번에 걸쳐 내가 생각하는 建築이라는 예술을 나의 經驗을 통해 써보았지만 더러 좀 獨斷的이라고 생각되는 (나 자신) 부분도 있을 것이다. 나는 예술이란 편견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調理士는 때로는 조리의 원리를 추월한다고, 나 자신은 건축디자인에 있어서 건축설계 학설따위 이론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될수록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운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사라넨의 M. I. T에 있는 교회

책에서 얻어지는 지식은 A 라는 사람이나 B 라는 사람이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은 비판하고 사고하여 자기 것이 될 때, A 의 경우와 B 의 경우는 달라진다. 그것은 비판, 사고의 바탕이 다르기 때문이다.

감각은 애초부터 완전히 다르며 독주적이다. 나의 감각은 순전히 나만의 감각이다. 감각을 통해 형성된 감성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감성이란 매우 개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잘 훈련된 감성을 통해 이루어진 작품은 매우 個性的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디자인에 있어서 설계시스템이라던가 모듈라라던가 그릿드시스템 등, 설계의 과학적 방법을 나는 결코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방법은 자칫하면 매마른 작품을 만들 위험성이 있어 여기에 감성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또는 감성만으로도, 최소한의 건축만 있으면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로마」에 이르는 길은 많다. 진리에 이르는 길 또한, 객관적인 어프로우치가 있는가 하면 직관적인 어프로우치도 있을 수 있다. 직관적이란 즉 감각적, 감성적이라는